三綱行實圖刊本攷

金　元　龍*

一. 序　言
二. 三綱行實圖의 編纂 및 刊行
三. 世宗以後의 三綱行實圖刊行
四. 現存 三綱行實圖刊本
五. 總　括

一. 序　言

世宗이 命刊한 三綱行實圖는 二倫行實圖, 續三綱行實圖, 東國新續三綱行實圖, 五倫行實圖等과 함께 全國民을 對象으로 한 李朝時代의 倫理道德教科書이며 또 그中 가장 먼저 編纂刊行되었을 뿐아니라 第一 많이 읽힌 册으로서 重要하고 한편 書誌學的으로는 李朝挿畵本의 代表的例로서도 有名하다.

이 三綱行實圖의 刊本으로서는 現在볼 수 있는 板本이 여러種類있으나 모두 全一册으로된 諺解本뿐이며 原刊記는 가지고 있으나 成宗 21 年(1490)의 諺解本出版以後의 것들이고 世宗때의 初刊 三卷 漢文本은 일찌기 消滅되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最近 筆者는 世宗朝初刊本이라고 믿어지는 三綱行實圖中의 烈女圖一册의 存在를 알게 되었으며 이 機會에 記錄에 나타나는 三綱行實圖의 刊行事實을 整理檢討하는 한편 서울大學校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六種의 現存刊本을 이 初刊本과 比較考察해보려고 하는 바이다. 三綱行實圖의 現存本으로서는 이밖에도

* 서울大・文理大敎授, 考古學專攻, 本所硏究員.

公私蒐集本中에 그 例가 더 있는것이 分明하지만 筆者의 過去經驗에 依하면 現在 通用되고 있는 三綱行實圖는 모두 諺解一册本뿐이며 그것도 後言하다시피 板種이 大概限定되어 있어 서울大學校所藏本 및 奎章閣本以外로 벗어나지 않으며 여기 紹介하려는 6種으로써 現存異本은 網羅된다고 믿어지는 바이다.

二. 三綱行實圖의 編纂 및 刊行

三綱行實圖는 世宗이 그 10年(1428) 10月에 그보다 앞서 晋州人某가 自己實父를 殺害한 事件에 呵然失色하여 經筵에서 臣下들과 議論한 끝에 集賢殿副提學偰循에게 命하여 從來 通用하고 있던 高麗權溥所著인 孝行錄等諸書를 參酌改撰케 한 것이며[1] 偰循責任下에 進行된 그 編纂事業은 世宗 14年(1432) 6月 9日에 稿本이 完了되어 世宗에게 進上된 것이다.[2]

三綱行實圖의 三綱은 君臣·父子·夫婦 即 忠臣·孝子·烈婦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 收錄된 人物의 性格에 關해서는 權採가 쓴 三綱行實圖序에

> 自中國以至我東方 古今書傳所載 摩不蒐閱 得孝子忠臣烈女之卓然可述者 各百有十人 圖形於前 紀實於後 而并系以詩 孝子則謹錄太宗文皇帝所賜 孝順事實之詩 兼取臣高祖臣溥所撰孝行錄中 名儒李齊賢之贊 其餘則令輔臣分撰·忠臣烈女之詩亦令文臣分製

라고 있어 中國과 韓國의 代表的 孝子·忠臣·烈女 各 110人의 略傳을 旣刊

---

(1) 世宗實錄 卷四二 十年 世宗十月辛巳條
上御經筵 上嘗聞晋州人金禾弑父之事 瞿然失色乃自責 遂召群臣議所以效孝悌厚風俗之方 判府事卞季良曰 請廣布孝行錄等書 使閭巷小民尋常讀誦 使之駸駸然入於孝悌禮儀之場 至是上謂直提學偰循曰今俗薄惡 至有子不子者 思欲刊行孝行錄以曉愚民 此雖非救弊之急務 然實是敎化所先宜 因舊撰二十四孝 又增二十餘孝 前朝及三國時孝行特異者 亦皆裒集撰成一書 集賢殿其主之

(2) 世宗實錄 卷五六 世宗十四年六月丙申條
集賢殿新撰三綱行實以進 序曰天下之達道(以下略)

內外各書에서 選取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册의 編纂方法에 있어서는 于先 各人의 該當事實은 插畵로서 그리고 그 뒷面에 略傳을 쓰고 있으며 傳記末尾에는 詩와 贊을 2首식 붙이는데

1. 孝子에 關한 것은 中國의 孝順事實에 나타나는 詩와 權溥의 孝行錄中에 실려 있는 李齊賢의 贊, 그리고 이번 編纂에 關連한 諸臣들의 詩를 接配하여 各各 1首식 붙였고

2. 忠臣, 烈女에 對한 贊, 詩는 이번 編輯諸臣이 分製한것을 붙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알려진 三綱行實烈女圖의 境遇 收錄된 總 110人의 烈女中 95人이 3代以來 明初까지의 中國女子이고 15人이 三國時代 李朝初까지의 韓國女性으로서 그 比例는 約 6對1이 된다. 이렇게 數量에 있어서 中國女性이 斷然壓倒的이고 또 그들을 앞에 내놓는 編輯을 하고 있어 李朝人들의 事大思想이 歷然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으나 當時로서는 當然以上의 當然之事인지도 모른다.

이들 收錄된 人物들은 孝子의 境遇는 廿四孝, 孝順事實같은 中國의 已往出版物에서 그대로 轉用한 것도 많을 것이고 其外의것은 中國의 正史의 列傳에서 간추린것이 大部分이겠지만 至今 그 仔細한 것 까지는 穿鑿하기 힘들며, 또 韓國人에 關해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權溥의 孝行錄을 再用한것이 틀림없으나 忠臣, 烈女篇은 集賢殿學士들에 依해 새로 編輯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何如튼 世宗은 이 三綱行實圖에 對해서 至大한 關心을 가졌던 것이 確實하며 그 稿本을 直接 檢討하고 權採의 序文中 遠邁라는 文句가 있는 것을 自己(世宗)에 對한 過讚이라고 해서 無讓 二字로 고치게 하고 있다.(3)

---

(3) 世宗實錄 卷五八 世宗十四年十月乙巳條
召直提學權採曰前者製進三綱行實序有遠萬二南之語 自古人臣之贊君上也 過情溢美者有矣 觀齊驅堯舜超軼 三代之辭則可知矣 然予則以爲遠邁之語大過矣光武於制誥令不稱聖 豈無意謂 改遠邁二字以進 採即遠邁爲無讓

이렇게 原稿檢討가 끝난 稿本三綱行實圖는 原稿完成된지 8個月後인 世宗 15年 2月에 鑄字所에 依해 板刻이 完了되었고 藝文大提學 鄭招가 王命으로 跋文을 만들고 있다.(4) 그리고 다시 1年 2個月뒤인 16年(1434) 4月 26日에 이 三綱行實圖를 「街童巷婦」에게 까지 읽히도록 하는 特別敎書를 中樞院使尹淮에게 作成토록 命하고(5) 그 敎書를 붙여서 同年 11月 25日 三綱行實圖印本이 마침내 頒布되었던 것이며 世宗이 그 編纂을 命한지 꼭 6年남어지가 되는 셈이다.(6) 이때 印刷頒布된것은 틀림없이 三綱行實圖全部 即 忠臣, 孝子, 烈婦 各 110人식 都合 330人이었음은 記祿에 뚜렷한데 現在는 原刊本이 남아 있는 것은 烈女圖뿐이고 忠臣, 孝子는 成宗 21年의 刪定一册本에 收錄된 各 35人以外에는 알길이 없게되었다.

三綱行實圖初刊本의 刊行은 三綱行實圖序에 있는것 처럼 鑄字所가 擔當하였는데 鑄字所에서는 이것을 活字로 印刷한 것이 아니고 本板印刷하였다. 그것은 序文中에도 「鋟梓」라고 되어있을 뿐아니라 뒤에서 보다시피 世宗朝初刊本이라고 認定되는 이번 新出本의 字의 크기가 行幅이 世宗 16年當時 鑄字所가 가지고 있었던 庚子字와도 다르고 또 바로 그해에 新鑄된 甲寅字와도 다르다. 따라서 初刊三綱行實圖는 아마 特大 本인 까닭으로 活字를 使用하지 않고 淨書된 原稿를 그대로 覆刻했던 모양이며 이點은 다시 뒤에서 再言하겠다.

---

(4) 世宗實錄 卷五九 世宗十五年二月戊申條
藝文大提學鄭招 承命製進三綱行實圖跋尾 其辭曰右三綱行實圖所載忠臣孝子烈女各一百十人 紀行圖形仍贊以詩 刊板已竟 命臣跋尾(下略)
그리고 鑄字所件은 權採의 序文에 있다.

(5) 世宗實錄 卷六四 世宗十六年四月甲戌條
上曰 三綱人道之大經 君臣父子夫婦之所當先知者也 肆予命儒臣 編集古今并付圖形 名曰三綱行實 鋟梓于梓 廣布中外 思欲擇其有學識者 常加訓導 誘掖奬勸 俟愚夫愚婦 皆有所知識 以盡其道何如 都承旨安崇善外啓曰 上敎允當 於是命中樞院使尹淮 製敎書 其辭曰(以下略)

(6) 世宗實錄 卷六六 世宗十六年十一月戊戌條
頒賜三綱行實于宗親及臣僚 又賜諸道

三. 世宗以後의 三綱行實圖刊行

이렇게 初刊本이 刊行된 뒤 約 18年 즘해서 三綱行實圖가 再印된 徵兆가 있다. 即 端宗即位年(1453) 11月에 當時 遼東에 가 있던 首陽大君이 都承旨였던 姜孟卿에게 便紙를 보내 兵要, 兵書, 三綱行實圖의 刊行은 文宗王때부터 自己가 委任받은 일이라 客地에서도 잊을 수 없으니 于先兵要를 速히 印刷頒布하고 三綱行實圖는 먼저 孝子圖만을 頒布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것이다.(7) 여기말하는 兵要는 그보다 2年뒤인 端宗 2年에 完成된 歷代兵要를 말하는 것이 分明하고 三綱行實圖는 新刊이 아니고 再印을 말한것이겠는데 아마 初刊本이 이미 稀貴해졌던 탓이라고 생각되며 孝子圖만을 頒布케하고 忠臣, 烈女를 保留하고 있는 것은 世祖가 將次의 纂位를 미리 計劃하고 한 일같다. 그것은 何如튼 이 世祖의 말을 通해 三綱行實圖가 當初에는 孝子, 忠臣, 烈女의 三卷으로 各各 單行本처럼 分離製册된것을 짐작할 수 있다.

王位를 빼앗은 後의 世祖는 三綱行實圖에 對해서, 特히 그 忠臣圖에 對해서 內心 몹시 꺼림적 했던 모양이며 世祖 11年 7月에, 三綱行實圖는 너무 形式的이고 또 번거롭다고 해서 새로 國民들에게 頒布할 五倫錄을 新撰시키고 있다.(8) 이 五倫錄은 實錄記事에 依하면 梁誠之가 編纂하였고 그것을 世祖가 盧思愼과 함께 最終檢討, 議定한것인데 實錄記事로써는 좀 曖昧한點이 있고 또 出版與否를 明白히 할 수 없다. 그러

(7) 端宗實錄 卷四 端宗即位年十一月庚午條
世祖在遼東 寄書姜孟卿曰 我雖在遠而兵要兵書三綱行實 受任先朝之事故不忍忘也 吾發京時 已詳啓焉 又兵要則速頒場 以成先王欲敎諸將之志 兵書則先印孫子 其餘待我回還 三綱行實則 先頒孝子圖甚可

(8) 世祖實錄 卷三六 世祖十一年七月庚午條
召梁誠之曰人之所以爲不過忠孝而已 忠孝之道於論語小學備矣 然經傳汗漫 莫若撮其要者而觀之 如孝行錄使於觀覽 三綱行實圖則略紀事迹又著詩讚 未免拘例且傷於煩 卿就孝三綱行實圖及諸史 撰關係五倫數十條以進 予將觀覽裁定以爲萬世敎人之法 誠之撰進 命與盧思愼同議校定 遂命五倫錄

나 이 記事를 通해서 우리는 世祖가 三綱行實圖를 탐탁하게 여기지않았으며 적어도 世祖 1代에는 三綱行實圖는 印出안된 것은 勿論, 그 通用도 奬勵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推測할 수 있다.

果然 三綱行實圖가 되살아나는 것은 다음 成宗때이다. 即 成宗은 그 2年 3月에 禮曹로 하여금 各地 鄕校生들에게 三綱行實을 배울것을 下達시키고 있으며[9] 또 그해 6月에 各道觀察使로 하여금 三綱行實圖를 널리 刊行하도록 命令하고 있다.[10] 그는 다시 그 12年(1481) 3月에는 當時 婦女들의 失行이 많다하여 婦女들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 三綱行實圖中 烈女圖만을 諺解를 붙여 諺解三綱行實烈女圖를 出版케하고 있다.[11] 이 諺解本이 正確히 어느해에 刊行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이 諺解烈女圖의 最初이며 烈女圖만은 成宗 21年의 刪定三綱行實諺解本에 앞서 110名 全員의 諺解가 實施된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成宗 12年에 三綱行實圖中 烈女圖의 諺解가 이루어진 뒤 三綱行實圖의 縮少刪定과 그 全部의 諺解가 實施되었다. 이것은 成宗年(1489) 6月에 와서 京畿觀察使朴崇質이 三綱行實圖는 册이 貴해서 官廳自身도 못 備置하고 있는 形便일뿐 아니라 內容이 너무 尨大해서 一般이 보기 힘드니 그中에서 特出한것만 抄錄해서 再出版하면 어떠냐고 成宗에게 啓言한데서 시작이 된 것이다.[12] 成宗은 朴崇質의 建議에 即席

---

(9) 成宗實錄 卷九 成宗二年三月辛丑條
傳于禮曹三綱行實 其令諸邑校生講習 經司講書時并講以勵風俗

(10) 成宗實錄 卷十 成宗二年六月己未條
傳旨禮曹曰(中略) 又令諸道觀察使 廣刊三綱行實等書 令民講習

(11) 成宗實錄 卷一二七 成宗十二年三月戊戌條
傳旨禮曹曰國家興亡由於風俗浮薄 而正風俗必自正家始 古稱東方貞信不淫 近者士族婦女 或有失行者 予甚慮焉 其印諺文三綱行實烈女圖若干帙 頒賜京中五部及諸道 使村婦巷女 皆得講習 庶幾移風俗

(12) 成宗實錄 卷二二九 成宗二十年六月戊子條
上引見開城府留守李約東等謂 開城地大民衆 如有積弊當革(中略) 京畿觀察使朴崇質對曰 世宗朝以三綱行實 頒諸中外 使人興起善心 然官府尙未有此書 況民間乎 臣意以爲三綱行實之書 圖形於前 記實於後 若敎之以此則風俗

同意하였으며 그 刪定을 許琛, 鄭錫堅 兩人에게 命令하고 있다. 이리하여 許, 鄭兩人은 三綱行實圖中에서 읽기 쉽고 感銘깊은 例만을 忠臣, 孝子, 烈女 各各 35人씩 都合 105名을 뽑았는데 各人의 傳記內容은 一切 增減變改하지 않았으며 또 木板도 校書館에 있는 舊板을 그대로 使用하고 있으나 裝釘만은 3冊으로 分冊하지 말고 1冊으로 하기로 한것이다.(13)

그런데 이 成宗年의 實錄記事에는 刪定1冊本이 諺解本이라고 特別히 明示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1冊本이 21年 4月에 頒布되었을때 그것이 京城5部와 8道郡縣에 보내져「愚夫愚婦」들에게 周知케 하도록 命令되고 있는 點으로나(14) 現存 刪定本이 모두 諺解本인 點으로나 또는 校書館에 있는 舊板烈女圖는 이미 諺解板이었던 事實로 보나 成宗 21年에 頒布된 刪定1冊本은 諺解本이었고 그해를 契機로 從前의 純漢文本은 通用이 自然中止되고 말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忠臣, 孝子篇의 諺解가 이 刪定當時에 實施되었는가 또는 그 以前에 이루어진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가 되는데 나는 그것이 成宗12年의 烈女圖諺解의 뒤를 이어 繼續해서 實施되었다고 보고 싶다. 왜냐 하면 成宗21年의 刪定本刊行書時에 校書館에 있는 舊板을 그대로 使用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板木에 이미 諺解가 彫刻되어 있어야 하지 板木에서 글자가 없는 部分은 出版技術上 이미 깎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可變 人心可改 但此書汗漫 愚民未易編覽 其中擇節行特異者 抄略刊印頒諸村野 使閭閻小氓無周知 庶有補於風化矣 上曰卿言是 此眞美事也 崇質曰道內印甚難 以鑄字印頒何如 上曰然

(13) 成宗實錄 卷二二九 成宗二十年六月己巳條
命侍講院輔德許琛吏曹正郎鄭錫堅刪定三綱行實 琛等啓曰臣等於三綱行實內擇人所易曉可以觀感者 各得三十五摠一百五人 其所記事實 皆簡約無可刪之辭 且祖宗已成之書 似不宜增損 校書館所藏三綱行實板本 以一人之事 各爲一張 今所抄一百五人槩皆取捨 用舊本印出 粧爲一册 頒布何如 傳曰可

(14) 成宗實錄卷二三九 成宗二十一年四月癸未朔條
命頒賜綱行實于京城五部及八道郡縣 令愚夫愚婦無不周知

그 板木에다 새로 補充加刻할 수는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成宗 12年에 烈女圖諺解板이 생긴뒤 繼續해서 남어지 2篇도 諺解板이 만들어졌다가 그것이 21年에 와서 刪定板印刷時에 그대로 寅用되었다고 보는 수밖에 없을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흔히 보는 1册本三綱行實圖는 成宗21年에 出版된 것이며 이 縮小版이라할까 105人諺解本이 나온 뒤로는 世宗時의 3册本은 自然 消滅하게 되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成宗다음에는 中宗때에 와서 그 5年(1510)[15]과 6年(1511) 및 10年(1515)[16] 세차례에 걸쳐 印出되었다. 特히 6年 印出時에는 2,940部라는 多量이 校書館에 依해서 印刷頒布되었으며 이것은 各道에 몇部씩 나누어주어서 道로 하여금 覆刻케 하는 普通의 慣例와는 달리 政府에서 印刷配本을 全擔하고 있는데 意義가 있다. 그리고 中宗 10年의 印出은 特히 開城人들을 위해 찍어서 보낸것이다.

中宗다음에는 明宗 9年(1555)에 三綱行實圖가 다시 多量 印刷되었고[17] 月沙集所收 宣祖行狀記에 依하면 宣祖 14年(1581) 頃에도 三綱行實圖가 印出된 徵兆가 있다.[18] 이것이 事實이라면 宣祖時의 이 印出이 壬辰亂以前으로는 最後의 三綱行實刊行乃至 印刷였다고 믿어진다.

壬亂以後로는 三綱行實의 印出記事가 實錄에 서너군데 나오고 있으나

---

(15) 中宗實錄 卷十 中宗五年正月辛酉條
命頒賜三綱行實于八道

(16) a. 中宗實錄 卷一四 中宗六年八月乙巳條
傳曰近來風俗不美 三綱行實多印頒布中外 使閭巷小民無不周知

b. 同 卷二二 中宗十年六月甲子條
傳曰開城府人民等 因前朝遺俗 崇佛敎不知彝倫 誠爲可慮 三綱行實 令加數印出 下送

(17) 明宗實錄 卷一六 明宗九年三月丙辰條
傳曰諭于京外 三綱行實等秋 成多數印出頒賜中外

(18) 이것은 前賢恭作 古鮮册譜所引 月沙集 卷五 昭敬大王行狀속에
儒先錄心經何氏小學 本朝所撰三綱行實可以扶植倫紀幷 命刊行이라고 있는 것이며 刊行이라는 文句로 보아 新刻을 뜻하는듯 하다.

英祖5年(1729)의 校書館刊行[19] 이 壬亂後의 新刊으로서는 最初이고 또 最後였다고 생각되며 英祖5年以前에는 光海君6年(1614)에 發刊된 東國新續三綱行實圖가 主로 行하여 졌고 正祖21年(1797)에 三綱行實圖가 二倫行實圖와 合本되어 五倫行實錄으로 新發足한 뒤로는 三綱行實圖는 單獨으로 刊行된일도 없고 印出된 일도 없었다고 믿어지는 바이다.

以上이 記錄에 나타나는 三綱行實圖의 新刊 또는 印出의 全部인데 勿論 이밖에도 記錄에 漏落되었거나 또는 李朝實錄索引에 漏落되어 찾아 볼 수 없는 刊行事例도 있을지 모르나 于先 上記한 刊行만을 列記해보면 다음처럼 된다.

1. 世宗16年 初刊本 1434年 鑄字所木版本
2. 端宗元年 印本(1의 再印?) 1425年
3. 成宗2年 刊本 1471年 各道刊本
4. 成宗12年 諺解烈女圖 刊本(若干部) 1481年
5. 成宗21年 刪定1册本(諺解) 1490年
6. 中宗5年 印本(5의 再印?) 1510年 頒八道
7. 中宗6年 印本(2,940部) 1511年
8. 中宗10年 印本 1515年 送于開城
9. 明宗 9年 印本 1555年
10. 宣祖 14年頃 刊本 1581年
11. 英祖 5年 刊本 1729年 校書館刊 (令各道印出)

그런데 以上 11回의 三綱行實圖 刊行 또는 印刷事業을 檢討해볼때 그 印出은 11回이지만 그것이 每番 新刊이 아니고 同一板을 利用한 後刊

(19) 英祖實錄 卷二三 英祖五年八月戊辰條
命校書館 印出三綱行實 分送諸道 使監營刻印廣布

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러 印本을 大體로 4種의 板種으로 大別할 수 있을 것 같다.

即, 第1種은 世宗 16年의 鑄字所初刊本으로서 이때에 만들어진 板木으로써 端宗元年, 成宗2年에 各各 後印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端宗元年은 世宗初刊後 不過 18年이며 初刊板木이 保存되어 있었을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또 成宗2年의 刊本은 各道로 하여금 印出케한 것인데 地方에서는 十中八九 初刊本을 그대로 覆刻하였을 것으로 推測된다. 結局 成宗 2年까지는 모두 世宗때의 初刊本의 增刷거나 覆刻이었다고 믿어지며 印出의 時間과 場所는 各各 다를지는 모르나 板式, 內容은 모두 實質的으로 世宗初刊本 그대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第2種은 成宗 12年(1481)의 諺解烈女圖와 同21年의 刪定1册本으로서 이 板式은 初刊本을 따랐을 것이지만 欄外에 諺解를 넣기 위해서는 새로운 板木을 마련한 것은 確實하다. 그러나 成宗 12年의 諺解烈女圖의 板木은 21年의 刪定本印刷時에 그대로 再用되었을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中宗 5年 同 6年, 그리고 同 10年 또는 明宗 9年의 4次에 걸친 印本은 모두 이 成宗 21年의 刪定諺解本板木을 그대로 使用, 增刷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明宗 9年은 1555年으로서 成宗 21年보다는 65年이란 時間的距離가 있으나 板木 105枚程度를 60年 程度 保存하는 것은 別問題가 아닌 것이다.

第3種은 宣祖時(1581年頃)의 刊行이며 이것은 月沙集에도 命刊行이라고 있고 또 明宗 9年(1555年) 보다도 26年 뒤로서 成宗 21年의 刪定本刊行時보다는 90餘年이나 뒤의 일이다. 이러한 事情을 參酌하면 宣祖時의 三綱行實印出은 新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宣祖新本은 壬亂時에 灰燼에 돌아간 모양이며 그 板木으로는 2回밖에 印刷못한 것 같다.

第4種은 英祖 5年(1729)刊本으로 이 壬亂後 最初의 新版三綱行實圖

가 其後 各種異本의 祖本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結局 地方板을 暫間 度外視한다면 中央에서 刊行된 三綱行實圖는 적어도 記錄上으로는 世宗初刊本, 成宗刪定諺解本, 宣祖新刊本, 英祖新刊本의 4種으로 되며 한편 內容上으로는 成宗刪定本을 境界로 해서 그 以前의 330人 純漢文本 即世宗本과 그 以後의 105人 諺解本 即, 成宗本의 2種으로 크게 2大分할 수 있다. 다만 烈女圖만은 世宗初刊本대로 110人 烈女圖의 諺解本이 成宗 12年(1481)에 나와 있기 때문에 板式은 成宗 21年의 刪定本과 同一하나 內容이 削除되지 않는 完本諺解烈女圖가 理論上으로는 어디 남아있을 수 있는 理致가 된다.

그런데 以上의 理論은 中央政府刊行本에만 該當되는 것이며 이밖에도 여러 地方板이 刊行되었을 것이 記錄上으로나 現實的으로나 分明하다. 至今簡單히 알 수 있는 그러한 地方板을 들어보아도

海西監營藏板

嶺南監營藏板

關北監營藏板

關西監營藏板

綾州牧藏板 (以上 鏤板考)

原州府執事廳藏板 (古鮮冊譜所引 原州邑誌)

英祖戊申(4年, 1728年) 平安監司 尹憲柱跋本 (古鮮冊譜所引 平壤 書誌)

英祖庚戌(6年, 1730)江原道觀察使 李衡佐序本 (奎章閣圖書 12148號)

等 各種이 있으며 風俗匡正의 唯一無二한 國民道德教科書같은 意義를 가졌던 이 三綱行實圖는 中央政府는 말한것도 없고 各級 地方官廳에서 隨時로 刊行 또는 印出하였던 모양이다.

四. 現存 三綱行實圖 刊本

그러면 이제 現存하는 三綱行實圖刊本을 檢討할 順序가 되었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기 現存本이라고는 하였으나 一一히 公私蒐藏本을 對象으로 한것이 아니고 서울 大學校圖書館所藏의 4種과 奎章閣圖書 2種, 그리고 이번 새로 알려진 一種 都合 七種을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1) 三綱行實烈女圖 (純漢文) 1冊 (圖1—7)

黑口. 四周雙邊. 每半葉 13行 22字. 版心 烈女圖. 匡廓 天地 27.4 cm 左右 16.8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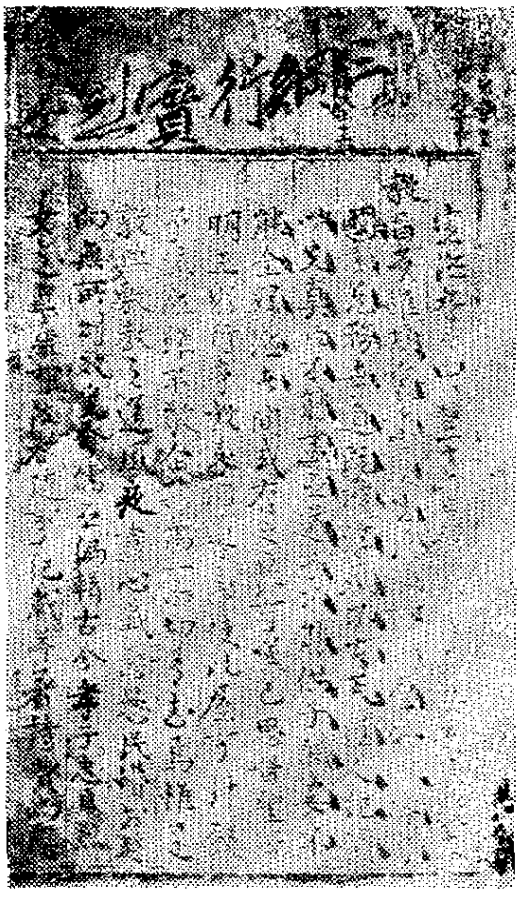

圖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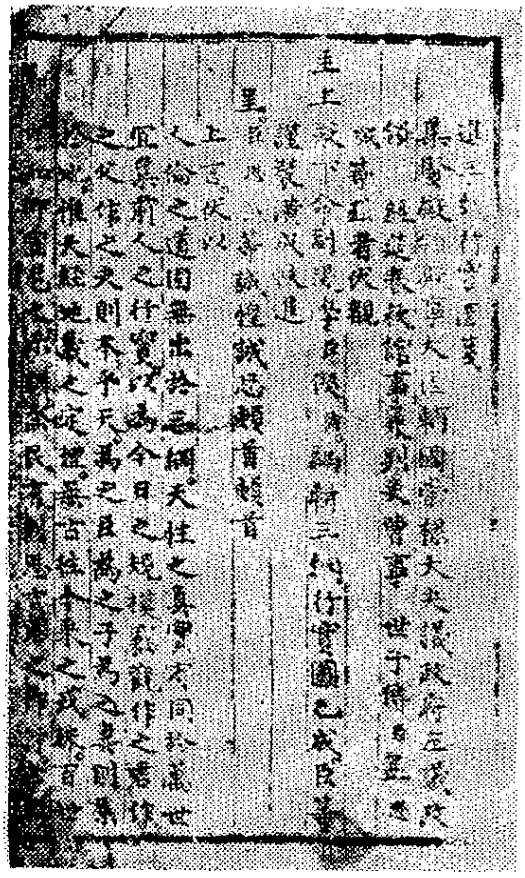

圖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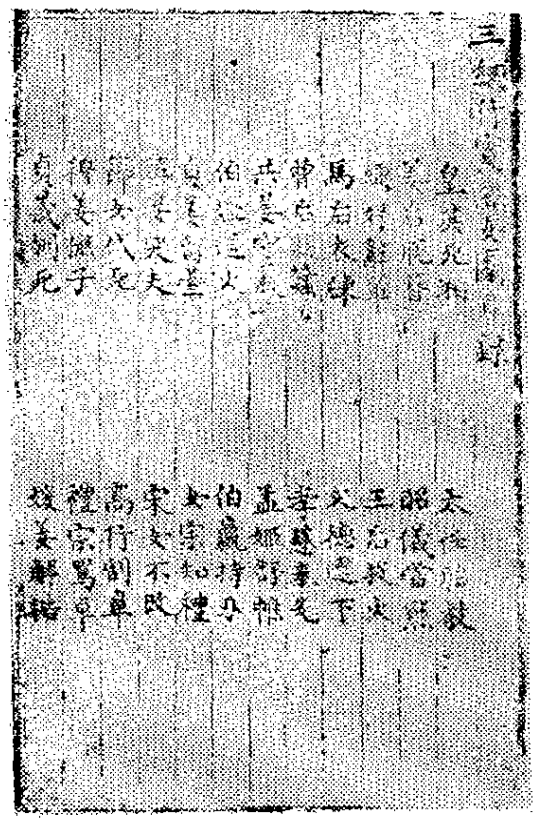

圖 3

圖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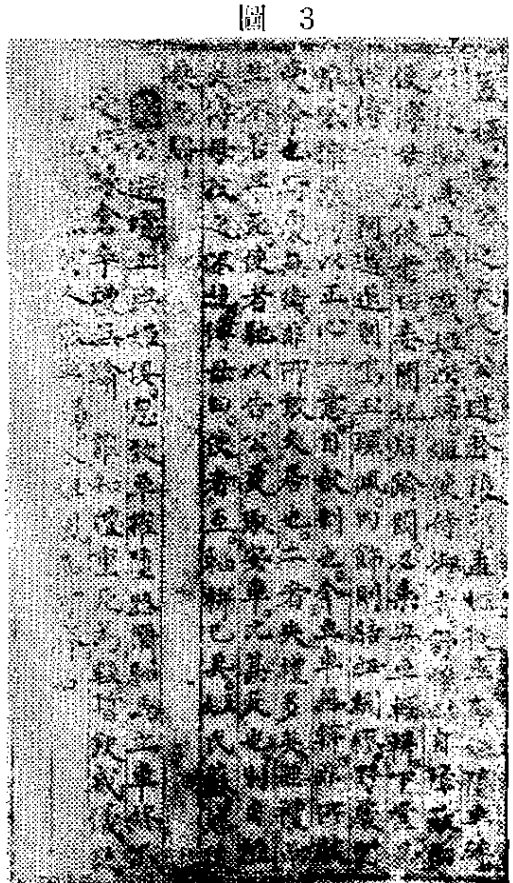

圖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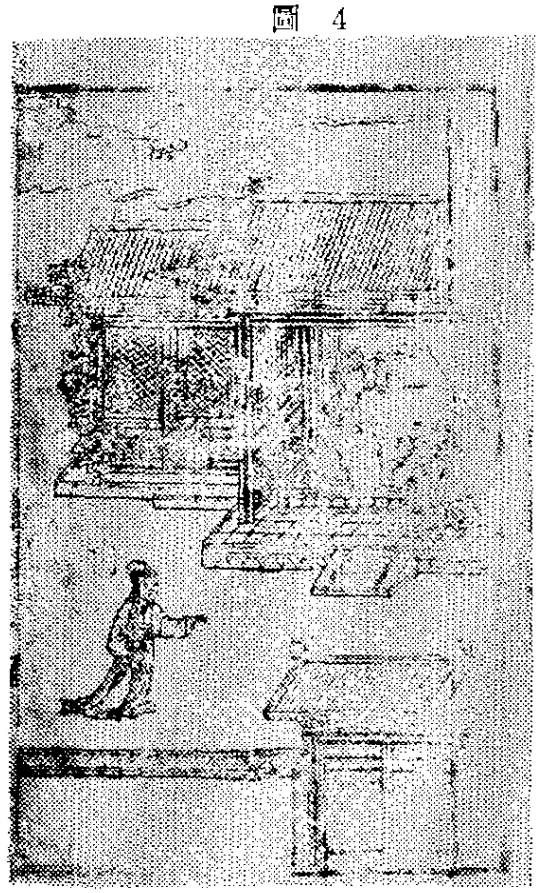

圖 6

圖 7

이것은 三綱行實圖中 烈女圖뿐이지만 다른 刪定諺解本과는 달리 烈女 110人 全員이 收錄되고 卷首에는 世宗의 敎書(圖 1)와 進三綱行實圖箋, 그리고 三綱行實圖序가 달려있다. 여기 世宗의 敎書와 進三綱行實圖箋은 現存 諺解本에는 全無한 것이어서 이册이 原本의 모습을 가지는 唯一의 例라고 하겠다. 그리고 敎書內容을 보니 實錄에 써 있다시피 世宗이 고치도록 한 遠邁 2字는 無讓으로 고쳐져 있다. 그리고 進三綱行實圖箋 (圖 2·3)은 本書에서는 嚴然히

宣德七年六月日 集賢殿領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經筵春秋館事 兼判吏曹事世子傅臣孟思誠等謹上箋

이라고 있는데 이 箋이 收錄되어 있는 東文選 卷四四에는 이것이 孟思誠이 아니고 偰循으로 되어 있어 理解할 수 없다. 東文選正篇은 成宗 9年(1478) 刊行된 것인데 이것은 三綱行實圖 刊行後 不過 44年 밖에 안되고 또 初刊本이 存在하고 있었던 때 인데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箋의 內容은 東文選이나 新出本이나 꼭 같으나 新出本에는 文中에 稟惟主上殿下德敦仁孝라고 있는데 對해 東文選에서는 稟惟德敦仁孝라고만 있고 主上殿下를 빼버리고 있다.

그것은 何如든 卷首의 敎旨는 行書體로 되어있는 데 이것은 都承旨安榮善아니면 이 敎書를 製作한 尹淮의 筆蹟을 그대로 板刻하였을 것이고 孟思誠의 進表의 筆蹟은 다음의 權採가 쓴 三綱行實圖序文보다 크기도 작고 도리어 本文의 字體와 비슷하다. 權採의 序文은 글씨가 큼직큼

직한 衛夫人體이며 行數도 11行, 字數도 20字로 줄어 들고 一見 甲寅銅活字와 酷似하나 仔細히 比較해보면 甲寅字版보다 行間이 若干좁고 또 글자 크기도 작아지고 있어 甲寅字와는 다르다.

以上 序文들이 끝나고 烈女圖目錄이 시작되는데 앞에서 말한것 처럼 35名으로 刪定하기 前의 110名 全員이 들어있다. 이제 參考로 現行 刪定本에서는 볼 수 없게 된 烈女全目錄을 轉載해보겠다. 그리고 刪定本에서 削除되지 않고 收錄되어 있는 烈女에 對해서는 姓名위에 ○標를 붙였고 또 韓國女生에 對해서는 그가 所屬하는 時代를 附記하여 두었다.

皇英死湘	太任胎教	姜后脫簪
昭儀當熊	婕妤辭輦	王后投火
馬后衣練	文德逮下	曹后親蠶
孝慈奉先	共姜守義	孟姬舒帷
○伯姬逮火	伯嬴持刃	貞善留臺
○女宗知禮	○殖妻哭夫	○宋女不改
○節女代死	○高行割鼻	○穆姜撫子
○禮宗罵卓	○貞義刎死	○媛姜解帶
○令女截耳	呂榮報仇	王妃拒刼
辛氏就死	宗氏罵晞	杜氏守尸
閻薛救死	毛氏彎弓	楊氏義烈
張氏墮樓	○李氏感燕	劉氏憤死
柳氏同穴	元氏毀面	柳氏投井
○崔氏見射	○淑英斷髮	象子遁去
上官完節	○魏氏斬指	玉英沉海
秦氏瞑目	二竇投崖	董氏剪髮
景文守正	烈婦中刃	周妻見賣
○李氏負骸	○趙氏縊輿	○徐氏罵死
希孟赴水	○李氏縊獄	趙氏遇害
○雍氏同死	○貞婦清風	○梁氏被殺
接蘭躍馬	住住死崖	莊潔頓坐
欒氏觸賊	獨吉縊死	妙眞赴井
○明秀具棺	貞烈焚死	俞母自誓

淑安瓜面　○義婦臥氷　冬兒自縊
錦哥井死　貴哥縊甕　劉氏握手
張氏自刃　○童氏皮面　張女投水
○王氏經死　彩鸞心淸　毛氏刳腸
淑靖投河　○朱氏懼辱　王氏死墓
許氏仆地　○翠哥就烹　妙安淬刀
節婦投江　華劉雙節　劉氏斷舌
姑婦並命　○寧女貞節　王氏號慟
潘氏隕命　傅妻俱死　○彌妻啖草(百濟)
主妻死水(高麗)　鄭妻偕沉(高麗)
安妻俱死(高麗)　○崔氏奮罵(高麗)
三女投淵(高麗)　○烈婦入江(高麗)
金氏死賊(高麗)　慶妻守節(高麗)
宋氏誓死(高麗)　○林氏斷足(李朝)
○金氏樸虎(李朝)　韓氏絕粒(李朝)
黎貴縊葬(李朝)　○金氏同穴(李朝)

그리고 이 新出本에서 孝慈奉先의 圖와 金氏撲虎부터 以下의 四丁은 後人이 筆寫해서 補充한 것인데 其中 韓氏絕粒, 黎貴縊葬만은 圖도 本文도 白紙만으로 되어있어 이 筆寫後補한 사람이 그 두 烈女가 削除되어 있는 成宗年以後의 刪定本을 本으로 하여 筆寫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以上 본바와 같이 內容으로 보아 이 新出烈女圖는 다른 現存刪定本에서는 削除되어 있는 75名까지 包含해 當初의 110人全部를 收錄하였으며 또 다른 册에는 없는 敎書와 孟思誠의 進三綱行實圖箋이 卷首에 붙여있고 또 揷圖 欄外空間에 諺解가 없어 이 烈女圖는 成宗 21年의 刪定以前板임은 말 할 것도 없고 成宗 12年의 全譯烈女圖보다도 앞서는 版임이 分明하며 비록 이것이 바로 世宗 16年(1434)의 原刊本原刷本인지는 斷言할 수 없으나 何如든 世宗 16年부터 成宗 12年(1481)까지 사이에 印刷된 原本 三綱行實圖의 一本임이 確實하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世祖 一代에는 三綱行實圖는 印刷되지

않았고 成宗 2年(1471)에 와서야 各道로 하여금 廣刊케 하고 있는데 이번 新出烈女圖는 冊의 크기가 現存本中 最大이고 또 字體나 線劃이 모두 明確하고 부드러울 뿐 아니라 地方監營의 刊記도 없고 紙質도 李朝極初期의 唐紙비슷한 黃薄紙로서 이것은 成宗代의 後印이나 覆刻이 아니고 世宗 16年의 鑄字所版 原刊本이 아니면 端宗元年의 再印本이라고 믿어지는 것이다. 或是 여기 보이는 黑口版心이 16世紀板本에 많이 보이는 그것과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여기서는 그것이 더 古式인 細黑口이고 또 魚尾에도 16世紀本에서 보는따위의 花文이 있는 것이 아니다. 參考로 말해두거니와 壬辰倭亂때 日本軍이 掠奪해간 李朝初期板本으로 有名한 日本蓬左文庫 속에도 年代가 確實한 世宗朝 黑口本이 三種類있다.(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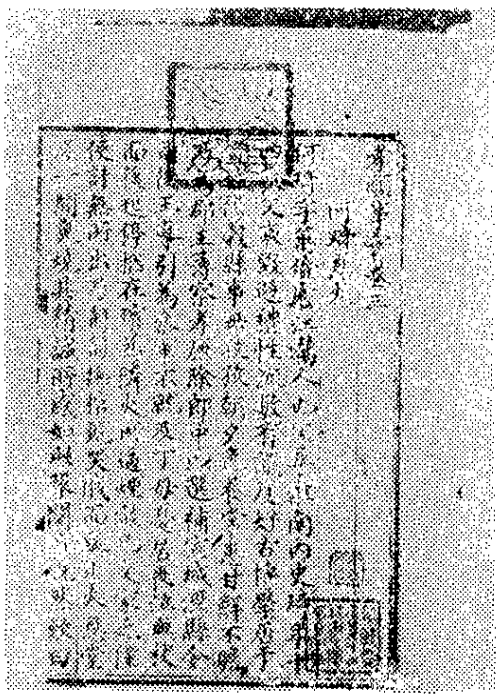

圖 8

더구나 이 三綱行實烈女圖를 李相佰博士秘藏의 明宣德板 孝順事實(圖8)과 比해 보면 行數字數는 틀리지만 四周雙邊, 黑口, 魚尾方向等 板式이 같을 뿐 아니라 字體, 句點等도 꼭 같아 集賢殿에서 三綱行實圖編纂時에 重要參考圖書로 使用한 이 明初板 孝順事實의 板式 書體를 그대로 襲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번 新出된 烈女圖가 世宗初刊本임은 疑心할 餘地가 없을 것 같으며 우리는 이 烈女圖를 通해서 初刊本의 板式, 內容等을 알 수 있

(20) 益齋亂藁 10卷 4冊, 世宗 14年(宣德 7年, 1432年) 刊
圃隱詩藁 2卷 2冊, 世宗 21年(正統 4年, 1439年) 刊
宛陵梅先生詩選 2卷 1冊, 世宗 29年(正統 12年, 1447年) 刊

을뿐 아니라 初刊本이 3卷3册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忠臣, 孝子, 烈女各篇마다 敎書, 序文等을 붙여 各各 獨立된 單行本과 같은 體裁와 또 役割을 하게 하도록 用意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 以後의 刪定本이 1册으로 合册 裝釘하면서도 忠臣, 孝子, 烈女各篇마다 權採의 序文을 붙이고 있는 點으로도 짐작할 수 있으며 當初부터 讀者層을 위해 各各 別册처럼 發行 頒布한 모양이다.

끝으로 한마디 할 것은 여기 插圖는 當時의 圖畫署畫工이 그린 것임은 序文에도 뚜렷하지만 實地 그림을 보면 倭兵을 除外하고는 中國人이나 韓國人이나 모두 中國式 옷과 머리를 하고 있으며 더구나 家屋이나 庭園이 모두 中國式으로 되어 있는 것이 氣分이 나쁜데 이것은 아마 畫工들이 三綱行實圖의 原本이 된 中國의 二十四孝 其他 插畫本을 보고 그대로 그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李朝初期만 하여도 慕華思想이 甚해 韓國人들의 生活을 畫面에서나마 漢式으로 만들어 노아야만 했는지 모르겠다.

(2) 서울大學校藏黑口諺解本 1册(古 1149의12B) (圖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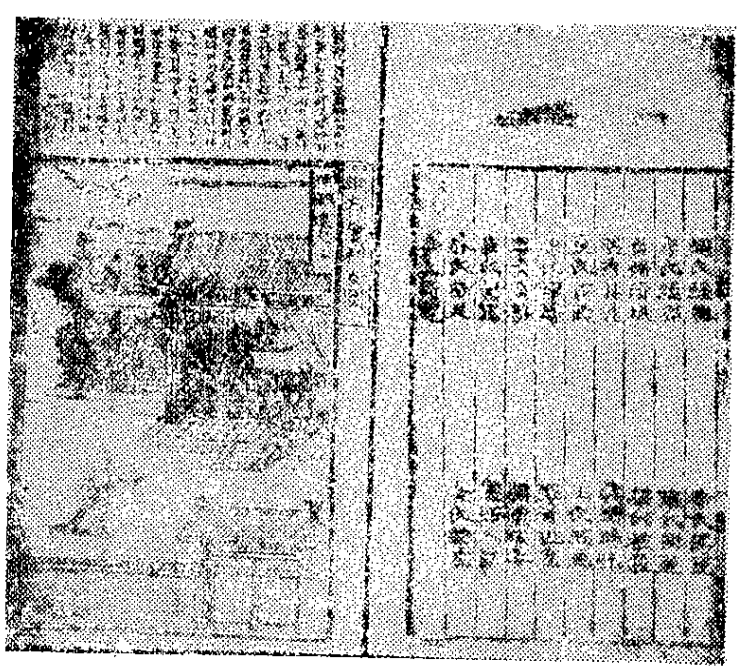

圖 9

木板, 黑口, 四周雙邊 每半葉 13行 22字, 匡廓天地 24·5mc. 左右 16·5cm

이册은 插圖위 欄外에 諺解가 달린 諺解三綱行實圖로서 現存 各本中 가장 年代가 오랜것이라고 認定되며 板心도 黑口이고 魚尾에는 花文이 없어 成宗21年의 刪定諺解本바로 그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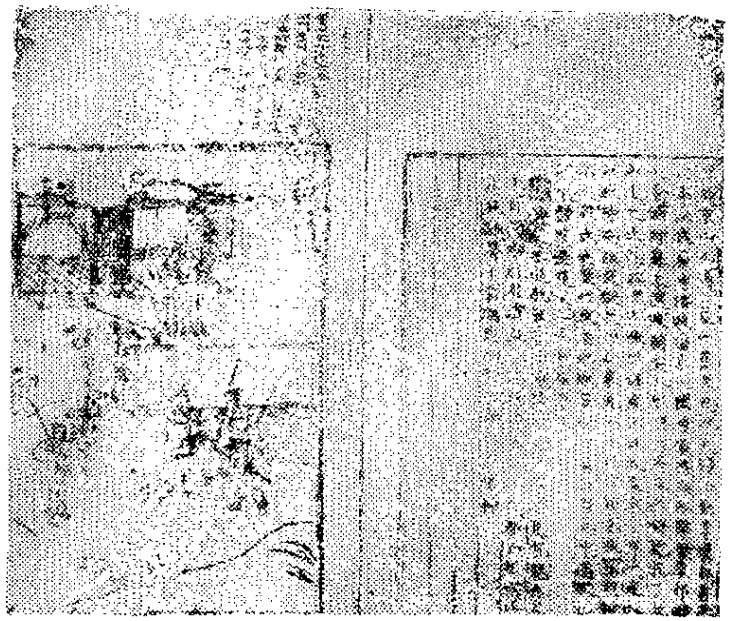

圖 10

아니면 地方覆刻本, 늦어도 中宗5年의 刊本이라고 생각된다. 字體도 板刻도 世宗初刊本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으나 挿圖 7과 9, 8과 10를 比較해보면 이 諺解本이 世宗初刊本을 忠實하게 模寫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即 板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點으로 보아 後者가 前者의 覆刻이 아닌 것은 分明하나 細部에 이르기까지 忠實하게 原圖를 模寫한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林氏斷足圖에서 보드시 倭兵의 衣服文樣이나 頭髮이 諺解本에서는 若干씩 달라진 點도 있기는 하다.

(3) 서울大學校藏 黑口諺解本 1册(古 1149의12) (圖 11·12)

木板, 黑口, 花文魚尾, 四周雙邊, 13行22字, 天地 25.5cm, 左右 1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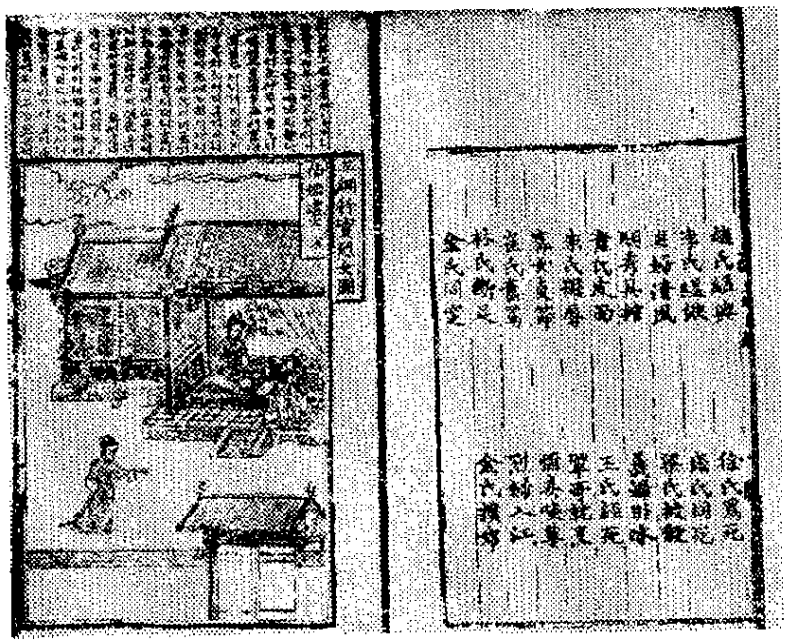

圖 11

諺解本中 最大의 것이지만 世宗初刊本에 比하면 約2cm 짧다. 그러나 幅은 約 2mm 더넓어지고 있다. 또 (2) 本에 比하면 天地는 1cm 길고 幅은 0.5cm 넓어질뿐아니라 黑口이면서 魚尾에 二花文이 들고 서로 異板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挿圖는 兩者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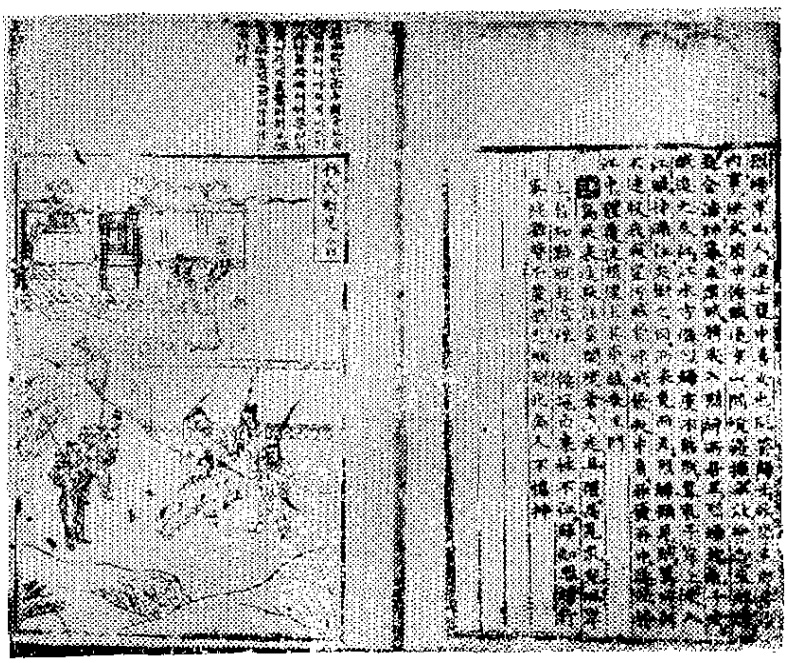

圖 12

比較하면 細部에서 若干의 差異는 있으나 根本的으로는 同一系統이며 以後의 各本에 比하면 아직 世宗本에 忠實한 편이라고 하겠다. 또 板式도 아직 壬辰前式이며 이것이 或是明宗 9年(1555)刊行의 新刻本이나 또는 그 覆刻本이 아닌지 모르겠다.

(4) 서울大學校 白口諺解本 1册(古 1149의12A) (圖13)

木板, 白口, 四周雙邊, 13行 22字, 크기는 天地 24.5cm 左右 16.5 cm로서 (2) 本과 同大이다. 그러나 兩者는 異板이며 한글의 字體가 훨신 다르다. 아마 (2) 또는 (3) 系統의 地方覆刻板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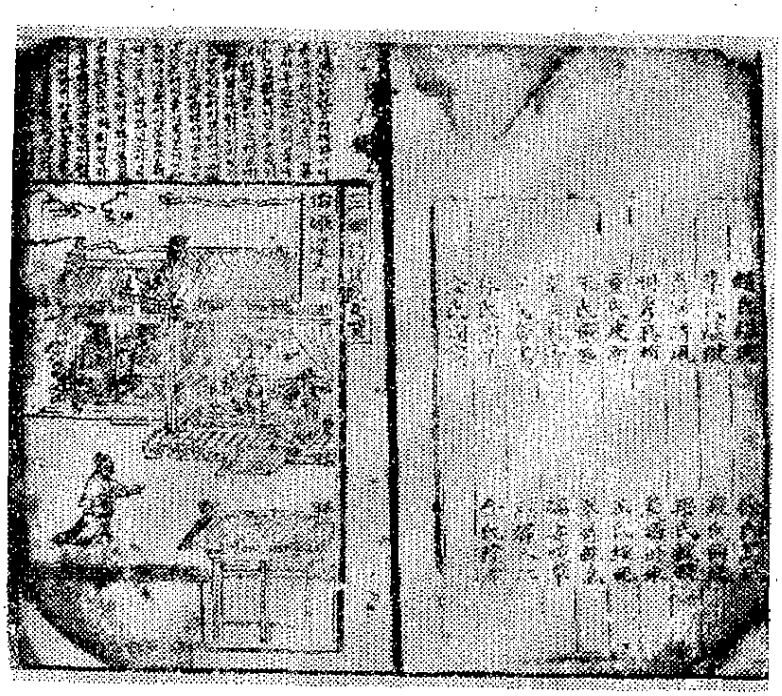

圖 13

(5) 서울大學校藏 白口 諺解本 1册(奎章閣 138) (圖 14・15)

木板, 白口 花文魚尾, 從來의 四周雙邊이 처음으로 四周單邊으로 되었으며 13行 22字, 天地 23.6cm, 左右 16.8

cm로서 現存各本中 크기가 第一 작다. 그러나 伯姬逮火의 挿圖를 精査하면 뜰에 서있는 女子의 옷 얼굴, 그리고 뻗친 左手의 손가락 모습, 또 구름의 形態等 (3)의 黑口, 花文魚尾本을 範本으로 하고 있음이 分明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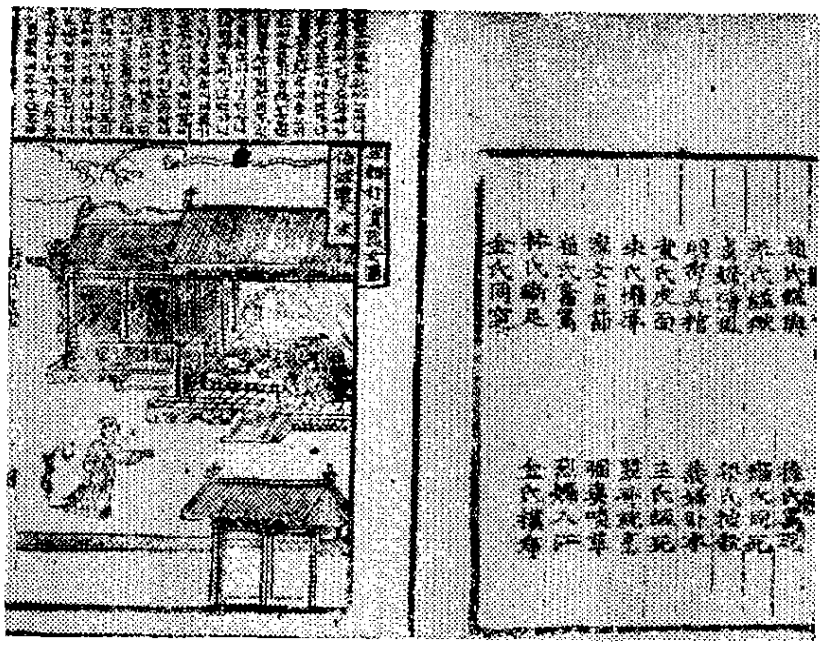

圖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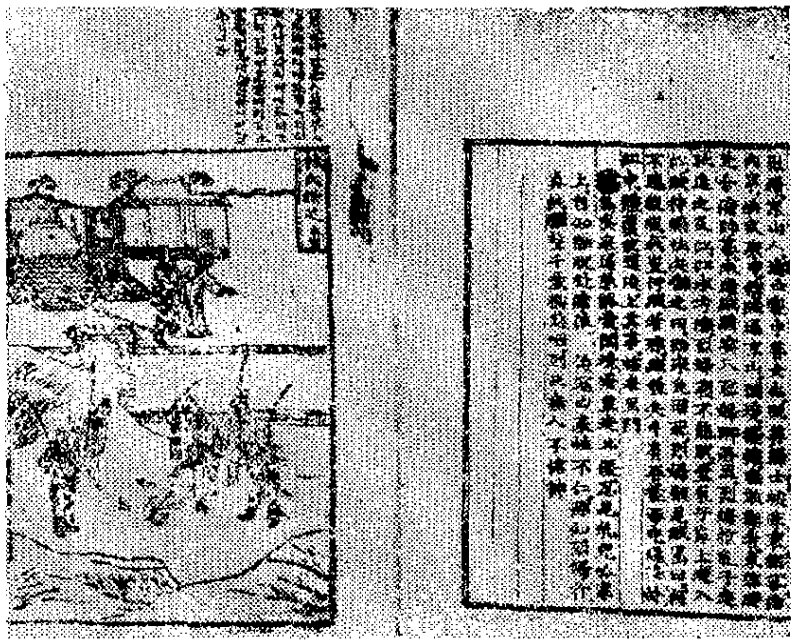

圖 15

며 이點은 林氏斷足의 岩石의 皴法에서도 볼 수 있다. 이册의 魚尾는 花文이 있지만 크지 않고 그字體와 함께 이것이 或是 宣祖 18年頃인 16世紀末葉의 刊本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이다. 또 이것이 바로 서울에서의 刊行本이 아니라 해도 그것을 覆刻한 地方版일 可能性도 多分히 있다.

(6) 서울大學校藏 白口諺解本 1册(奎 12148) (圖16・17)

木板, 白口, 花文魚尾, 四周單邊, 天地 25.8cm, 左右 18.5cm, 그리고 江原道觀察使李衡佳의 英祖 庚戌 (1730) 仲夏에 된 序文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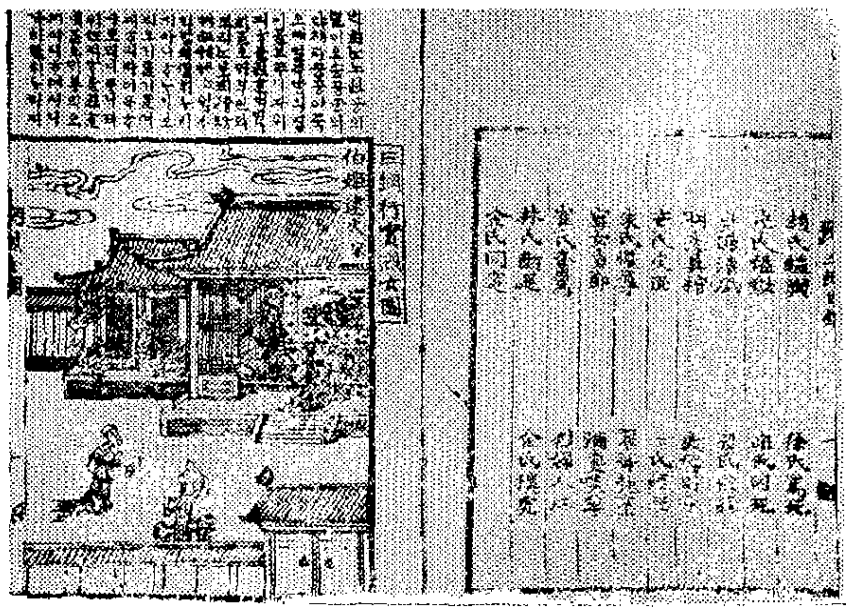

圖 16

이册의 特色은 幅이 넓어진것과 插圖의 細部가 달라진 點이다. 即 從來의 各本에 比較하였을때 于先 伯姬逮火의 境遇(圖 16) 구름이 全혀 달라졌고 主殿안벽에 걸린 山水畵幅이 山峯이 없어진 대신 江邊에 突出한 高臺에 우진각집亭子가 서있다. 또 집正面에 살門이 한짝 새로 달렸고 방바닥의 塼이 없어지고 또 至今까지는 全혀 없었던 怪石이 한개 뜰에서 있다. 이 怪石은 淸朝의 文人畵에 잘 나타나는 그러한 怪石이며 淸朝繪畵로부터의 影響이 歷然하다. 또 插圖위의 諺解內容이 從前에는

「백희는 노선공의 따님이니 송공공의 부인이도얏다가 공공이 주근후에 바미 불나거늘(下略)」

云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백희는 노선공의 딸이오. 송공공의 안해라 공공이 죽으매 일즉 밤의 집이 불 브르니(下略)」

式으로 行文이 달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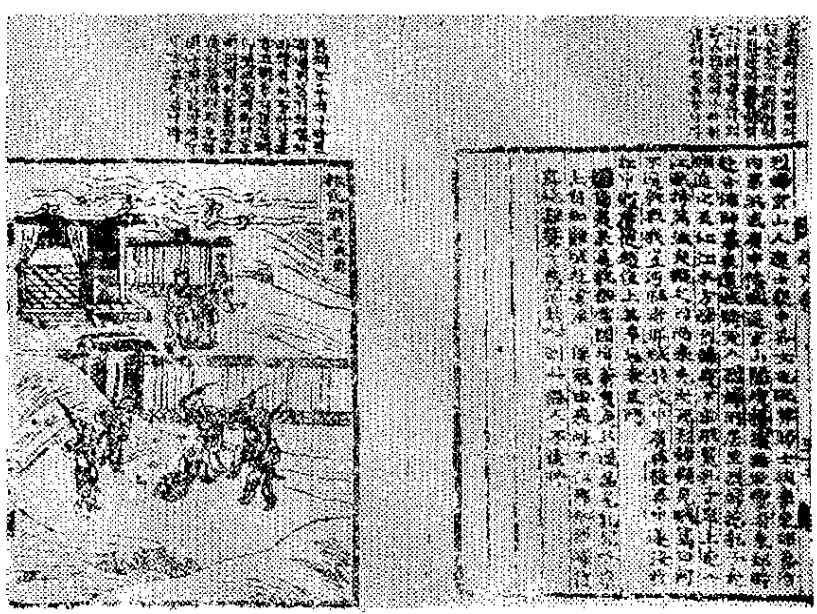

圖 17

또 林氏斷足圖에 있

어서도 구름이 달라졌고 집옆의 平地가 傾斜로 되고 또 倭兵의 옷에서 文樣이 없어졌으며 이것을 世宗初刊本의 그것과 比較하면 懸隔한 差異가 있다.

이 册은 그 序文에 依해 英祖 6年(1730年)에 江原監營에서 刊行된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英祖가 校書館으로 하여금 三綱行實圖를 刊行케하여 8道에 分配한 바로 다음해이며 따라서 이 江原版은 英祖 5年 校書館版의 覆刻本임이 틀림없다. 即 우리는 이 江原版을 通해 英祖 5年 校書館新刊本의 體裁 및 內容을 알 수 있으며 이때에 諺解文도 그 時代에 맞도록 改訂하였고 그림도 새로 그려 文字그대로 新版을 내놓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7) 서울大學校藏 白口諺解本 3册(古 1149의3) (圖 18)

白口, 花文魚尾, 四周邊雙, 13行22字, 天地 25cm 左右 18.5cm 이것은 前各本과 꼭같은 刪定諺解本이면서 3册으로 分綴되어 있다.

江原版보다 天地는 若干짧으나 幅은 꼭 같고 구름은 江原版과 다르나 其他 插圖의 細部——例를 들면 殿內壁畵, 庭園의 怪石等 모두 江原版과 같으며 諺解內容도 同一하여 이版은 江原版과 同一版을 使用한 覆刻本이라고 믿어진다. 이것이 或時 江原版의 母本이 된 校書館版 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으나 版式字體, 印刷法等이 粗雜하고 中央版이라기 보다는 亦是 어느 地方版이라고 보아야 할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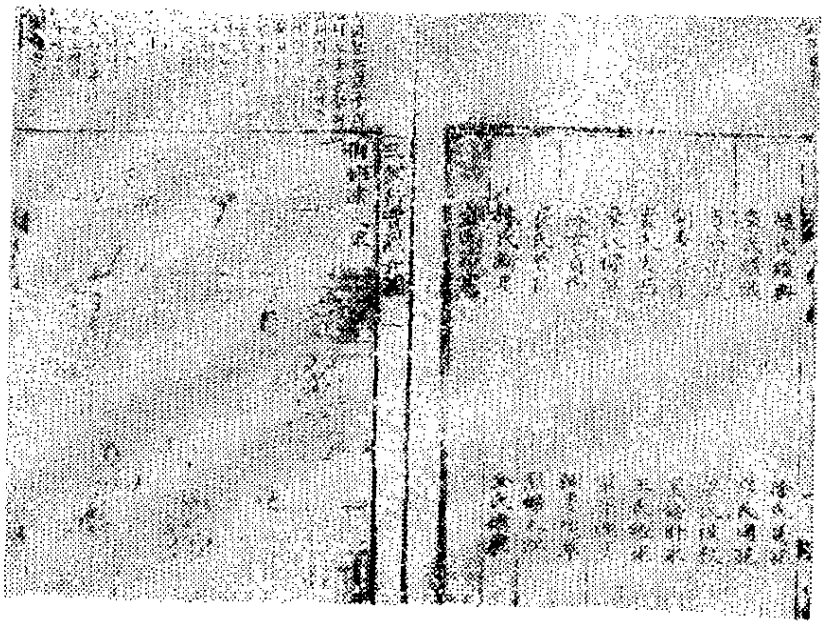

圖 18

五. 總　　括

以上 본바와 같이 三綱行實圖는 世宗에 依해 國民道德敎本으로 編纂刊行된 뒤 英祖代에 이르기까지 오랜 期間을 두고 必要를 느낄때마다 中央政府와 地方官廳에서 印刷 또는 新刊되었으며 其後에 생긴 여러 비슷한 倫理敎本中에서도 가장 基本的인 것으로 看做되어 왔다.

그리고 世宗朝刊行의 漢文三綱行實圖는 成宗21年 諺解附 刪定 1冊本이 刊行된 뒤로는 通用이 中止되어 自然消滅했고 이 諺解1冊本이 壬亂後까지 普遍的으로 通用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正祖代에 와서 二行實倫圖와 合本되어 五倫行實圖로 改撰 刊行된 뒤로는 亦是 印刷도 讀誦도 自然 中止되었던 모양이다.

現在 傳해지는 板本은 大體로

1. 世宗初刊本(端宗元年後印本?)
2. 成宗刪定諺解本(中宗5年本? / 明宗9年本?)
3. 壬辰前白口諺解本(宣祖14年頃?)
4. 英祖 新刊本

의 4種으로 區分할 수 있다. 成宗刪定本은 原刊本은 없고 中宗5年(1510)이나 明宗9年(1555) 本의 覆刻이라고 생각되는 黑口本이 現存하고 있으며 宣祖때 新刊된 것으로 보이는 白口本도 있다. 英祖本은 江原道本을 通해 그 모습을 알 수 있으며 諺解, 插圖等 그 以前의 各本과 다르다.

이렇게 現存하는 三綱行實圖의 種類는 記錄에 나타나는 그것과는 꼭 符合되지는 않으나 大體로 平行하고 있으며 世宗初刊本은 烈女圖1冊뿐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通해 世宗當時의 原形을 알 수 있는 것은 多幸이라 하겠다.